

스피드 코리아 질주만 남았다

2014년 2월 열리는 소치(Sochi) 동계 올림픽에서 ‘스피드 코리아’의 명성을 이룰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구성이 확정됐다.

국제 빙상경기연맹(ISU)은 11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소치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의 종목별 출전권 획득 현황을 공개했다.

한국은 남자부에서 8명, 여자부에서 7명이 기준을 통과해 출전권을 확보했다.

‘빙속 여제’ 이상화(24·서울시청), 남자 단거리 간판 모태범(24·대한항공), 장거리 간판 이승훈(25·대한항공)을 필두로 이규혁(35·서울시청), 이강석(28·의정부시청) 등 주요 선수들이 예상대로 출전권을 따냈다.

남자 500m에 모태범, 이강석, 김준호(18·강원체고), 이규혁이 나서고 여자 500m에 이상화, 김현영(19·한국체대), 이보라(27·동두천 시청), 박승주(23·단국대) 등 네 명씩 출전에 단거리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나선다.

남자 1000m에는 모태범과 이규혁, 김태윤(19·한국체대)이 출전하고 여자 1000m에는 이상화와 김현영이 나선다.

중·장거리에서는 남녀 팀추월 대표 선수들이 나란히 출전권을 확보했다.

남자 1500m에 김철민(21·한국체대)과

주형준(22·한국체대)이 나서고, 5000m에는 이승훈과 김철민이 출전한다. 이승훈은 남자 1만m에서도 출전권을 따냈다.

여자부에서는 1500m와 3000m 출전 선수 명단에 김보름(20·한국체대), 노선영(24·강원도청), 양신영(23·한국체대)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김보름은 여자 5000m에도 출전한다.

대표팀은 남녀 팀추월에서도 나란히 출전권을 확보했다.

남자 팀추월은 이승훈·김철민·주형준이, 여자 팀추월은 김보름·노선영·양신영이 나선 것으로 전망된다.

ISU는 올 시즌 월드컵 1~4차 대회 성적을 토대로 소치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출전권을 배분한다.

먼저 월드컵에서 따낸 순위 포인트 합계에 따라 종목별 출전권을 나눠준다.

남녀 500m·1000m·1500m에서 20명, 여자 3000m·남자 5000m에서 16명, 여자 5000m·남자 1만m에서 10명이 각각 월드컵 포인트로 선발된다. 남녀 팀추월은 6팀이 각각 출전권을 얻는다.

포인트 순위에서 탈락한 선수들 가운데

실력 보여준 동성고 군단

야구대제전, 세광고 8-6 꺾고 결승 진출

동성고의 우승을 위해 선배들이 불쳤다. 광주 동성고가 11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야구대제전 준결승전에서 청주 세광고를 8-6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벤트성 대회이기는 하지만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룬 올 시즌 첫 전국대회 결승이다. 동성고는 올 시즌 막강 화력을 앞세워 황금사자들과 대한야구협회장기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모두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으며 4강에 만족해야 했다.

2013년을 마무리하는 대회에서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먼길을 달려온 선배들이 신바람을 불어넣었다. ‘하늘 같은’ 선배 장채근 휴익대 감독을 필두로 해서 KIA와 두산 선수들이 양대 산맥을 형성했다.

김주형·양현종·김다원·고영우(이상 KIA), 이원석·최주환·윤명준·윤도경(이상 두산)이 대거 출격했다. LG 문선재, 삼성 박병선과 올 시즌 SK의 1차 지명을 받은 동성고 에이스 박규민도 모교를 대표해 그라운드에 섰다.

동성고 3학년인 이태훈을 선발로 해서 김흥빈(1년), 방건우(2년), 박규민(3년)이 차례로 마운드를 지켰고, 2013 플레이오프의 히어로 윤명준이 마무리로 등판해 마지막 아웃카운트 3개를 처리했다.

프로에서와는 다른 활약을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줬다. LG의 내야수 문선재가 중견수로 외야를 뛰어나갔고, 두산의 3루를 수성하고 있는 이원석은 중견수와 1루수로 뛰면

서 1인2역을 했다. 역시 내야수인 김주형도 좌익수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원석·김주형 모두 익숙지 않은 포지션에서 머쓱한 실수를 하며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지난 가을 경찰청에서 제대한 김다원은 시원한 3점포를 쏘아올리며 화려하게 복귀를 알렸다. 양현종은 라식 수술 여파로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지만 배트보이를 자처해 선·후배들을 응원했다.

선배들의 든든한 지원사격을 받은 동성고는 12일 오후 12시 성남고와 대회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

트렌티노 동계 U대회 개막

전세계 대학생들의 겨울철 스포츠 대제전인 2013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11일 이탈리아 트렌티노에서 개막해 1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한국은 스키 프리스타일과 아이스 하키를 제외한 9개 종목에 선수 74명을 포함한 총 109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정훈재와 조경란(이상 나주 동신대 1년)이 바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했다.

조경란은 지난해 94회 전국 동계체전 여고부 바이애슬론 18km계주와 개인경기 12.5km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이규혁

이승훈

모태범

이상화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 15명 확정

이상화·모태범·이승훈 등...이규혁 6회 출전 금지됨

월드컵에서 작성한 기록 순에 따라 각 종목별로 6~20명이 추가 출전권을 얻는다.

모태범, 이승훈, 이상화, 김현영 등이 월드컵 포인트로 출전권을 따냈고, 나머지 선수들은 기록 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어 추가 승선했다. 대표팀 총원은 16명이 출전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보다 1명이 줄었다.

다만 국가당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는 여자 1000m에서 이보라(27·동두천 시청)가 예비 1순위, 안지민(21·서울대)이 예비 2순위에 올라 있고, 3명까지 출전가능한 남자 5000m에 고병욱(23·의정부 시청)이 예비 1순위에 올라 있다.

특히 이번 확정된 대표 15명 중에는 스피

드스케이팅 대표팀의 맏형이자 정신택 지주인 이규혁(35·서울시청)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남자 500m와 1000m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된 이규혁은 올림픽 무대를 여섯 번째로 밟을 전망이다.

1991년 열세 살의 어린 나이에 처음 태극마크를 단 이규혁은 20년 넘게 전 세계의 빙판을 누비며 월드컵 등 숏한 국제대회를 제패한 한국의 간판 스포린터다.

세계 스포린트 선수권대회에서 4차례, 종목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1차례 정상에 올랐고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통산 14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1997년 1000m(1분10초42), 2001년 1500m(1분45초20)에서 각각 세계기록을 작성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이 강국으로 대접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를 시작으로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까지 다섯 대회 연속 출전한 그는 다시 한 번 도전에 나서 소치에서 여섯 번째 무대를 맞게 됐다.

이규혁은 지난 10월 새 시즌을 열면서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되새겨보면 마지막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에는 메달과 상관없이 즐겁게 맞이하고 끝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발 스매싱~

11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동남 아시안게임(South East Asian Games)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대표팀의 남자 세팍타크로 더블(2인조)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노프리살(5번)이 미얀마 탄친우의 발리슛을 받아내고 있다. 세팍타크로는 말레이시아어로 ‘차다’는 뜻의 ‘세팍’과 태국어로 ‘공’을 뜻하는 ‘타크로’의 합성어이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원석·김현수·한기주·안치홍.

그라운드 별들 호프집에 ‘총총’

그라운드의 ‘작’이 이웃사랑을 위해 ‘동료’로 만난다.

한기주·안치홍(이상 KIA), 이원석·김현수(이상 두산), 황재균(롯데)이 오는 21일 서울에 모인다. 각기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특별한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 5명의 선수가 모이게 된 이유는 일일호프.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사랑의 일일호프’가 3년째 이어지면서 적들이 동료로 다시 한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KIA와 두

산 선수들로 이뤄졌던 라인업에 올 겨울 황재균까지 가세하면서 윈터리그 멤버는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조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한기주가 있다. 이웃 사랑을 위해 한기주가 행사를 제안하면서 청소년 대표로 함께 했던 각별한 친구 김현수가 멤버가 됐다. 안치홍은 선배의 부락에 흔쾌히 응하면서 일일호프와 인연을 맺었다. 여기에 이원석은 동성고에서 함께 뛰었던 한기주의 1

년 선배이자 김현수와도 특별한 선후배.

신입 멤버인 황재균은 한기주·김현수와 87 동기 사이다. 김현수와 친분이 두터운 황재균이 “좋은 일에 함께 하고 싶다”고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겨울 한자리에 뭉치게 됐다.

이들은 2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카오 족발(압구정 로데오 역 6번 출구 앞)에서 손님을 맞이한다. 직접 서빙을 하며 행사를 진행하는 이들은 사랑의 경

매를 위해 애장품도 내놓았다.

또 지난해에 이어 배우 김영옥·한정원, 가수 리아킴, 모델 송해나도 행사에 참가해 정성을 보낼 예정이다.

한기주는 “독거노인분들을 돕기 위해 올해도 행사를 준비했다. 프로야구선수로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수들이 작은 행사를 마련했다. 많은 관심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기주·안치홍·김현수·황재균 등

21일 서울서 자선 일일호프·애장품전